

전 산업군 손뻐는 컴투버스, B2B전략 앞세워 신사업 가속

컴투스 올인원 메타버스 플랫폼 산업계 전반 기업들과 적극협업 기술·IP·파트너 3가지 초점맞춰 양·질 충분한 플랫폼으로 신뢰 ↑

게임업체가 실적 반등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전략으로 'B2B(기업간 거래)' 카드를 내밀고 있다. 이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메타버스, AI 등의 신사업 개발에 속력을 내겠다는 것이다. 게임업체 사이에서 이같은 이례적인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곳은 컴투스다.

◆컴투버스 앞세워 메타버스개발 속력

컴투스는 지난 4월 올인원 메타버스 플랫폼인 '컴투버스'를 출범했다. 컴투버스는 컴투스와 영상콘텐츠 제작사 위지웍스튜디오, 메타버스 기업 엔피와 메타버스 전문 조인트벤처 형태의 회사다.

뿐만 아니라 금융·문화·라이프·의료·엔터테인먼트·패션 등 산업계 전반의 기업들과의 협업에도 적극적이다.

구체적으로 ▲메타버스 금융 서비스와 관련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하나금융그룹, ▲에듀테크 및 생활문화기업



이경일 컴투버스 대표이사

컴투스

교원그룹, ▲도서문화기업 교보문고, ▲비대면 진료 및 처방약 배송 서비스 기업 닥터나우 ▲의료기기 개발 및 의료전문 포털 플랫폼 기업 한미헬스케어 ▲K-POP 공연 플랫폼 기업 마이뮤직 테이스트 등이 있다.

특히 해당 기업들과는 초창기부터 함께 메타버스 관련 작업을 하면서 메타버스 생태계를 함께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타

게임사들도 다양한 B2B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처럼 전 산업군을 대상으로 협업하고 있는 곳은 컴투스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기술, IP, 파트너 메타버스 3대 요소

이처럼 메타버스사업에 진입한 컴투버스가 구체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경일 컴투버스 대표이사의 얘기를 들어봤다. 먼저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술 ▲IP ▲

파트너에 3가지에 초점을 맞췄다.

이 경일 컴투버스 대표이사는 "컴투버스가 구축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에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용자가 동시 접속하고 플레이하는 만큼 기술과 경험을 가진 많은 개발자들을 포함해 약 70여 명의 직원들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내용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이사는 "컴투스 그룹이 투자 활동을 통해 확보한 '컴투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와 콘텐츠가 앞서 내용을 뜻한다. 양과 질이 모두 충분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이용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컴투버스가 지향하는 목표에도 달하기 위해서는 능력과 노후를 두루 갖춘 기업들과의 협업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이커머스, 교육,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 금융 등 우리가 만나게 될 서비스들은 각 영역에서의 독자적인 전문성과 노후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 모든 것을 갖추는 것은 그 어떤 기업도 어려운 일"이라며 "컴투버스는 각 비즈니스 섹터에서 최고의 기업들과 함께 구축해 나가는 것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공간 기반 커뮤니케이션 실현

이 대표는 "단순하게 2D기반, WEB 2의 서비스를 3D가상공간으로 옮기는 형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같은 공간에서 지금 함께하고 있을 때 그 효능이 높아지는, '공간 기반 커뮤니케이션'을 실현하는 서비스를 구축하려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컴투버스는 독보적인 메타노믹스를 필두로 미래의 디지털 패러다임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모든 바탕에는 유저가 있다고 말한다.

우선 컴투스 그룹은 그 일환으로 전사가 하반기 메타버스 오피스 입주를 시작하면서 직접적인 경험을 한다. 메타버스 오피스에는 상상력, 편의성, 힐링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게 구축했다.

이 대표는 "유저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직접 전사가 메타버스 환경을 경험해 볼 계획. 가장 첫번째 프로젝트가 '오피스'라며 "이를 점차 발전시키고 다듬어나간다면 궁극적으로는 근무 형태의 다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SK C&C, 의료 AI전문기업과 '의료 AI 얼라이언스' 구축

딥노이드·루닛·뷰노와 MOU 뇌질환 등 입증된 솔루션 종합 맞춤형 의료AI패키지 개발 추진

SK(주) C&C가 국내 대표 의료 기업들과 '의료 AI 얼라이언스(Alliance)'를 맺고 의료 AI 생태계 활성화에 나선다.

SK(주) C&C(대표이사: 박성하, skc.co.kr)는 23일, 국내 대표 의료 AI 기업인 '딥노이드, 루닛, 뷰노'와 '의료 AI 생태계 조성 및 사업 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김완중 SKC&C Digital New Biz부부장, 윤동준 Healthcare그룹장, 김태규 딥노이드 전무이사, 장민홍 루닛최고사업책임자, 이에



왼쪽부터 SK(주) C&C 김완중 Digital New Biz.부부장, 뷰노 이예하 대표, 루닛 장민홍 최고사업책임자, 딥노이드 김태규 전무이사가 '의료 AI 생태계 조성 및 사업 협력을 위한 협약(MOU)'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SK C&C

하 뷰노대표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분당 SK-u타워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4개사는 의료 AI

분야 글로벌 산업, 기술 트렌드 공유는 물론 의료 AI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동 세일즈, 마케팅을 위해 협력한다.

우선 협력 솔루션으로 ▲뇌질환(뇌

출혈, 뇌위축) ▲흉부질환 ▲유방암 ▲척추질환 등 부위별 주요 질환 영상을 판독할 수 있는 각 사 인공지능 솔루션들이 선정됐다.

이들은 모두 국내 주요 의료기관에서 그 우수성이 입증된 국내 대표 의료 AI 솔루션들이다. 각 사별 의료 AI 솔루션을 종합해 의료 기관 맞춤형 의료 AI 패키지 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병원들은 필요에 따라 부위, 질환별 의료 AI 솔루션들을 언제든지 쉽게 선택해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의료 AI 얼라이언스 4개사는 사별 의료 AI 솔루션 협력 범위를 넓히며 국내 의료 AI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장 경쟁력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카카오엔터프라이즈 AI얼굴 인식분야 글로벌 기술 1위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인공지능 얼굴 인식 분야의 글로벌 탑티어 기술 대회 1위라는 영예를 얻었다. 또 미국, 중국 등 얼굴 인식 기술을 선도하는 전 세계의 유명 인공지능(AI) 업체들이 맞붙는 글로벌 컴퓨터 비전 기술대회에서 국내 기업인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1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AI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전 세계 기술 표준을 선도하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주관하는 '얼굴 인식 기술 대회(FRVT, Face Recognition Vendor Test)'의 1:1 검증(verification) '키오스크(kiosk)' 부문에서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얼굴 인식 분야의 글로벌 탑티어 대회인 FRVT는 얼굴 정보 대조를 통한 출입국심사, 여권 불법 복제 탐지 등 민간·사법·국가 보안 영역에서 활용되는 자동 얼굴 인식 알고리즘의 성능을 측정하는 대회다.

특히, 1위를 차지한 키오스크 부문은 얼굴이 아래쪽을 향해 왜곡 및 소실이 잘 발생하는 이미지를 다뤄 다른 부문에 비해 난이도가 높은 분야이다. 고도의 AI 얼굴 인식 기술력을 요하는 부문에서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이룬 이번 성과는 글로벌 AI 업계에서 괄목할 만한 매우 값진 결과다.

2위를 한 '출입국심사(border)' 부문에서는 선두 기업과 불과 0.0001 차이로 보였고, '비자 출입국심사(VISA border)' 부문 4위, '상반신(mugs hot)' 부문 4위에 올랐다. /세윤정 기자

KT, 탈시설 중증장애인 가구 24시간 AI케어 서비스

10여곳에 AI스피커·IoT기기 연동 간단 음성 명령만으로 가전 제어도

#.서울 흥제동 자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A씨는 희귀병인 소뇌위축증으로 제대로 걸거나 서지 못해 주로 바닥에서 생활한다. 사지마비 장애가 있는 언니와 지적 장애를 가진 부친과 함께 지내다보니 평상시 활동지원사의 도움이 없으면 간단한 일상생활조차 어려움이 따른다. 전등을 켤 때는 스위치를 누르기 위해 긴 막대를 사용해야 하고 택배가 오면 배송기사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는 등 불편함을 넘어 크고 작은 사고 위험에도 항상 노출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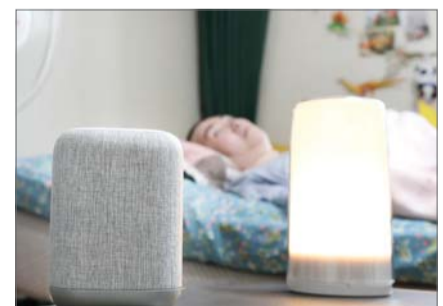
KT가 이 같이 신체 기능에 제한이 있거나 보행이 어려워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탈시설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AI 케어서비스 보급에 나섰다

KT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10여 곳에 인공지능 스피커와 IoT(사물인터넷) 기기를 연동해 중증장애인의 생활 공간을 스마트홈으로 구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365일 24시간 AI 케어서비스를 무상 제공한다.

이에 앞서 KT는 연세대 교원창업벤처(썬앤엘피), 서울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협력해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대상자의 질환이나 환경에 따라 각

기 다른 수요를 파악해 가정마다 세심하고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3개월 간 면밀한 사전 리서치를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이 간단한 음성 명령만으로 조명을 비롯해 선풍기, 가습기, 공기청정기, TV 등의 가전을 직접 제어하고 커튼도 열고 닫을 수 있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또 외부인 방문 시 비밀번호를 노출하거나 현관까지 이동하지 않아도 원격으로 방문객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줄 수 있고 위급 상황 시에는 KT 텔레캅-119 연계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신속하게 도움을



중증장애인 A씨가 서울 흥제동 자택에서 AI 케어서비스를 통해 간단한 음성명령만으로 댁내 가전을 제어하고 있는 모습. /KT

받을 수 있다.

KT는 앞으로도 정부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해 디지털 플랫폼 역량을 활용한 취약계층 돌봄 분야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 하고 나아가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세윤정 기자 echo@